

태고의 습지, 우포늪 생태관광에로의 초대¹⁾

노 용 호²⁾
우포늪생태관

서 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버려진 개발의 대상인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관광의 트렌드(trend)도 소비 중심의 관광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으로 그 경향이 변하고 있다.

습지와 생태관광에 대한 이 글은 독자들에게 습지의 정의와 중요성, 한국의 대표적인 내륙 습지인 우포늪에서의 생태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구의 중요한 생태자원인 습지(wetland)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 습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현장인 우포늪 생태관광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습지의 정의와 중요성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자는 국제 습지 협약인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에서는 습지를 “물의 깊이가 6m를 넘지 않는 젖은 땅”으로 정의한다. 습지는 모기가 많고, 버려진 땅으로 개발의 대상인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있는 생태계의 천국으로

서 그 가치가 재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홍수 조절 효과, “자연의 콩팥” 같은 수질정화 기능, 생태교육 장소이며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휴식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포늪에 사는 잉어, 붕어, 가물치 등의 물고기들은 물고기를 잡는 지역 어부들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있다.

우포늪의 형성

우포늪은 국내 최고의 자연 내륙습지로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대합면 주매리, 이방면 장재리 등에 걸쳐 있는데 그 크기는 축구장의 210배이자 서울의 여의도 크기만한 약 70만평의 수면 면적과 250여 만평의 보호지



사진 1. 2008년 제 10차 람사르총회 참석차 우포늪을 찾은 외국인 대표

1) Invitation to Upo Wetland Ecotourism

2) ROH, Yong-ho, E-mail: yhnoh11@korea.kr

역으로 이루어진다.

우포늪의 광활한 늪지에는 1500여 종의 생태 식구들이 살아가고 있다.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 갈대와 창포는 물론 자라풀, 가시연꽃을 비롯한 수많은 수생식물들, 다양한 버들류 들을 포함한 나무들, 수서 곤충들과, 물고기들, 텃새와 철새들이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우포늪은 약 1억 4천만년 전에 만들어 졌다는 설과 6천년 전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우포늪이 낙동강과 더불어 만들어졌다는 설로 나누어진다. 1억 4천만년 전에 만들어 졌다는 설은 우포늪 주변을 이루고 있던 퇴적암층에서 약 1억 1천~2천만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과 빗방울 무늬 화석, 곤충 화석이 발견되어 우포늪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다. 생생 시기를 떠나 우포늪은 자연의 선물이며 우리의 귀중한 생태자산이다.

화왕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토평천과 낙동강 물이 역류되어 올라오는 물들이 우포늪을 만든다. 우포늪은 물이 고이기도 하고 흘러 나가기도 하며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을 수시로 바꾼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명체를 키우고 생태계를 안정시켜 주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우포늪은 주민들에 의해 소벌로 불리어져



사진 2. 꽃이 함께하는 우포늪.

왔다. 우포늪 부근에는 소의 목 모양의 산이 있어 소목산이라 불리는데, 소목산이 있는 곳에는 소목마을이 있다. 최근까지 주민들이 불려온 소벌은 우포늪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1872년에 만든 지방지도에 보면 우포(牛浦)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포 앞의 장재마을 뒤엔 황새봉, 소가 많다는데서 유래한 우만 마을, 풀이 많은 골자기 마을 이름인 초곡마을 등 생태와 관련 된 이름들이 많다.

풍부한 자연생태계 환경

우포늪은 1500여종의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다. 우포늪에는 백로와 왜가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160여종의 철새들과 우포늪의 상징으로서 환경부 보호종이기도 한 가시연꽃, 4월의 자운영꽃 들판, 물옥잠화 등의 식물 500여종 등이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포늪의 새들, 수생식물, 어류와 패각류 그리고 곤충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포늪의 새들 중 겨울철새이다. 우포늪의 사계절 가운데 겨울에 가장 많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겨울철새는 시베리아 동북극 지방에서 여름 번식을 마치고 혹독한 추위를 피해 10월 경 남쪽으로 와서 월동을 하는 데 우포에는 황새, 두루미,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과 맹기물때새, 큰부리큰기러기, 가창오리의 군무 등 화려한 새들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여름철새들로는 해오라기, 중대백로, 왜가리 등이 찾아온다.

우포늪의 수생식물들은 다양하게 퍼져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물가의 식물들은 억새, 애기부들, 창포, 매자기와 줄 등이다. 물위에 잎을 내는 식물들은 마름, 가시연, 노랑어리연꽃 등이다. 물속에 잠겨사는 식물들은 검정말, 나사말, 그리고 통발 등이다. 그리고 물위에 떠서 사는



사진 3. 우포늪을 찾은 새.

식물들은 개구리밥, 생이가래, 자라풀 등이 있다. 우포늪의 대표적 어류와 패각류들은 가물치, 붕어, 매키, 버들붕어, 대칭이, 말조개, 논우렁이, 그리고 물달팽이 등이다. 우포늪의 대표적 수서곤충류는 꼬마줄물방개, 물자라, 소금쟁이, 게아재비, 실잠자리, 장구애비 그리고 긴꼬리투구새우 등이 있다.

우포늪은 주민들을 품에 안고 엄마의 심정으로 혜택을 주는 곳이다. 우포늪에서 만난 주민 중 1명은 우포늪 인근 마을에서 태어나 고등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토도 많지 않아 마을을 떠난 뒤, 부산에서 어렵게 살다가 우포가 있는 마을에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었던 것도 우포늪에서 잡던 물고기들과 논우렁이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우포는 주민들에게 고마운 곳이다.

보호지역 지정 후 우포늪 주민들은 고기를 잡아오던 13명만이 고기 잡는 허가를 받았다. 이 중 요즘엔 8명만이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다.

우포늪은 우포늪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우포늪의 추억과 멀어져간 출향민 모두에게 어린시절의 추억을 주는 곳이다. 여름엔 통발을 놓아 미꾸라지를 잡고, 겨울엔 나무로 직접 만든 스케이트를 타면서 추위도 잊고 놀던 곳이다. 주위의 4개면

아이들이 아침에 소를 몰고 와선 물고기도 잡고 씨름도 하면서 놀았다. 어린이들을 따라온 소들은 우포늪의 풀들을 뜯어 먹은 뒤에 해가 질러하면 알아서 어린 주인들을 찾아와 집으로 향했다.

우포늪의 사계절

우포늪은 사계절은 뚜렷하게 다르다 (absolutely different). 우포늪 방문자들은 우포늪 방문 시 우포늪의 계절적 특성을 알고 오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사계절 모습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포늪의 봄은 새로운 생명의 솟아나는 곳이며, 새벽의 물 안개 피는 모습 또한 아름답다. 우포늪의 여름은 가시연꽃과 다양한 수생식물들의 녹색용단으로, 가을의 우포늪에서 방문객들은 시인이 될 수 있다. 아니 마음자체를 비울 수 있다. 겨울엔 새들이 많다. 기러기들은 10월초가 되면 우포늪에 오기 시작하고 터를 잡는다. 새들이 많아 새소리와 함께 잠이 들고 “꾸꾸꾸” 등의 새 소리가 알람(alarm) 소리가 되어 잠을 깨는 곳이다. 철새를 보기 위해선 10월부터 3월초까지, 녹색을 보기 위해선 5월에서 9월까지가 좋을 것이다. 우포늪을 닦하지 말고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우포에 대한 기본적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오는 준비가 필요하다.



사진 4. 우포늪의 봄.



사진 5. 가시연 설명을 듣는 외국인 방문객들.



사진 6. 역동적인 우포늪생태관의 해설.

효과적인 우포늪 생태관광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들은 우포늪에 오기 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포늪을 방문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 방문 전 우포늪에 관한 공식 홈페이지인 ‘우포늪사이버생태공원’(www.upo.or.kr)을 클릭(click)하여 우포늪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진다. 둘째, 우포늪생태관(530-1552~5)을 찾아 우포늪에 대해 자세히 안다. 우포늪생태관은 ‘우포를 가장 빠르고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우포늪생태관에서는 두 종류의 영상물이 방영되는 되는데 하나는 우포늪의 사계절을 다룬 다큐멘터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포늪에 대한 3D 영상물로 방영 시간은 각각 15분이다. 영어자막과 한국어로 된 해설과 영어로 된 영상물도 있다.

우포늪생태관 예약전화 시 우포늪현장 해설을 위한 예약 전화도 동시에 한다(055-530-1559). 도착하여 우포늪생태관을 둘러본 뒤 우포늪 현장으로 나가면 된다.

우포늪생태관

우포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우포늪을 가장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포늪생태관이다. 습지인 우포늪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환경부와 경상남

도 그리고 창녕군에서는 우포늪 생태관을 만들었다. 우포늪 생태관에서는 우포늪에 살고 있는 동식물, 곤충은 물론 우포늪에서 살아온 주민들에 대해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는 곳이다.

우포늪생태관의 우포 관련 영상물들은 우포늪의 사계절 생태를 잘 알 수 있는 ‘우포늪의 사계절’과 3D입체영상물인 어린이용 ‘우포늪의 사랑’이 있다. 이들 영상물들을 통해 방문객들은 습지와 우포늪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포늪 부근의 역사와 문화자원들

우포늪이 위치한 경남 창녕군엔 우포늪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창녕엔 생태는 물론 역사와 문화 자원들이 많은 곳이다. 우포늪 인근엔 개인 석빙고도 있었던 1만평의 성씨 고가가 있다. 또한 1928년 이일래 선생님이 만드신 친숙한 국민동요 ‘산토끼’노래를 만든 것을 기념하는 “산토끼노래비”가 이방면 이방초등학교에 있고, 우포늪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창녕읍에선 진흥왕 척경비와 창녕석빙고는 전국에서 6개가 있는데 그 중 우포가 있는 창녕군에 2개나 있다. 우포늪과 창녕을 찾는 방문객들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 유적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포늪

방문객들은 부곡온천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습지 문화의 진수, 창녕 비봉리 유적

우포늪이 위치한 창녕군 부곡온천에 자가용으로 15분 걸리는 곳에 위치한 비봉리 폐총 유적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습지유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8천년 전의 배가 부곡온천 인근의 비봉리에서 2005년 8월 발견되었다. 이는 우리 한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세계(世界) 최고(最古)의 배로서, 일본의 6천5백년 전 배보다 무려 1500년을 앞서는 배라고 한다. 이곳은 습지 인근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발견된 곳으로, 그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사적 48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을 발굴한 임학중 국립김해박물관 관장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토기와 석기, 8천년 전 통나무 배, 식물의 중기로 짠 바구니, 여러 종류의 동물유체(호랑이, 사슴, 멧돼지, 소, 개 등), 어패류(상어, 가오리, 송어, 잉어, 굴, 꼬막, 재첩), 식물유체(도토리, 가래, 솔방울, 조, 각종 열매나 씨앗 등)가 출토되었다.

창녕비봉리 유적은 토기나 신석기 중심의 신석기 문화 연구의 차원을 넘어 신석기인들의 생업, 환경, 당시 생태 등의 연구는 물론 복원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발굴된 8천년전 배는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 배로 ‘한국인은 어디에서 왔는가’와 ‘한국의 배’를 말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중요한 배이다. 오해 2010년 다시 발굴주인데 6천 500여년전 신석기인들이 짓던 노가 발굴되기도 했다.

우포늪과 인근의 관광지들

- 우포늪을 걷는 우포늪 둘레길(가칭)
우포늪을 둘러보는 길은 4시간 코스와 그

이상의 길리는 길로 나누어진다. 우포늪 생태관 앞에서 내려와 1탐방로에서 시작하여 전망대 밑을 지나 1탐방로의 자전거 돌아 가는 길, 사초군락지, 목포제방, 숲탐방로 3길, 소목마을 주차장, 주매제방, 숲 탐방로 2길, 사지포제방, 대대제방으로 가면된다. 우포늪 길은 힘든 곳이 거의 없어 어린이와 노인들도 함께 걸을 수 있고 생태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 우포늪에서 자전거 타기

우포늪생태관 맞은 편과 2주차장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우포늪을 빠른 시간에 빨리 보고 싶은 빠른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 우포늪 소달구지 타기

지역주민 소득 사업으로 창녕군이 마련하였으며, 성인 방문객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체험 관광 거리다.

- 우포늪 쪽배타기와 미꾸라지 잡기(또는 논우렁이잡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이다. 대하면 신당리의 ‘우포가시연마을’과 (사)푸른우포사람들 에서 가능하다.

- 창녕읍의 역사 관광지

창녕군의 창녕읍에는 신라진흥왕 척경비, 석빙고, 가야시대 고분군들 등 다양한 역사 자원들이 있다.

- ‘산토끼노래’가 만들어진 초등학교 방문

‘산토끼노래’가 만들어진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코스이다. 1928년 이일래 선생님이 학교 뒤 산에 올라가니 일제치하인 당시 자유롭게 산토끼들이 뛰어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국

민동요인 ‘산토끼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일래선생님은 다른 국민동요인 ‘고향의 봄’ 노래를 이원수 선생님과 함께 만든 분이시다. 경남 창녕군 이방면 면사무소 뒤에 위치한 이방 초등학교이다. 창녕군은 산토끼를 주제로 한 관광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

진행 중인 우포늪 생태관광 자원들

- 멸종위기종, 따오기 증복원사업: 따오기 증복원 센터

성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따오기노래’의 주인공 새, 따오기는 1979년 경기도 파주에서 미국인 조류학자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것이 확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종인 따오기는 1981년 중국 섬서성 양현에서 7마리(암 수 두 쌍과 새끼 3마리)가 발견되어 30여년의 증복원사업 끝에 1400여마리로 증가하였다. 일본도 20여년 간 증복원사업을 통하여 100여 마리를 복원했다.

국내에서는 2008년 10월 17일 국제습지총회인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국의 장쩌민 주석으로부터 암수 1쌍을 기증 받았다. 2009년 새끼 4마리가 태어났으나 2마리가 죽고 나머지 2마리는 잘 자라서 어미만 하다. 2010년 3마리가 다시 태어

나 총 7마리가 한국의 우포늪 증복원센터에 있다. 죽은 2마리는 우포늪생태관에 잘 진열되어 방문객들에게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되고 있다. 창녕군은 따오기사육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2010년 11월 현재 따오기 증복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 우포늪수생식물단지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들은 우포늪 안에서 주민들이 어로작업에 사용하는 작은 배를 타거나 수생식물을 만지는 활동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창녕군에선 경남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에 우포늪수생식물단지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우포늪의 식물을 보고 만지며 우포늪 주민들이 타는 배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체험장을 마련하고자 공사 중에 있다. 우포늪수생식물재배단지가 세워 질 창녕군 주매리는 우포늪의 하나인 사지포와 우포늪 그리고 목포까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결 론

우포늪이 위치한 경남 창녕군에는 우포늪이라는 생태자원은 물론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들이 있다.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길과 화왕산 등의 생태자원, 가야시대 고분들과 진흥왕척경비 등의 역사 자원 그리고 산토끼노래를 만든 학교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들은 새로운 생명의 솟아남, 물안개 피는 모습, 여름의 반딧불이, 그리고 겨울의 다양한 철새 등 사계절 다른 모습으로 반기는 우포늪에서 생태보전의 필요성과 건강 그리고 추억도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사진 7. 우포늪따오기증복원센터에서 복원 중인 따오기.